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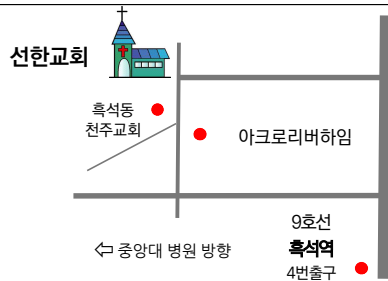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목사)
은 퇴 장 로	김 대 희, 박 희 태		주안예교회 (이정필목사)
	유 신 웅 (집사장)		가슴뛰는교회 (원종선목사)
	조 윤 익, 고 상 돈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조 계 승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8장	
교 독 문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찬 양 과 경 배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	
예 배 기 도	조계승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사도행전 22장 30절 ~ 23장 11절	
설 교	예루살렘에서 4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신희강 안기연 오성애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단기선교팀		
	대 표 기 도	구영서 집사		
	찬 양	어린이 수화 찬양		
	무 언 극	Lead Me To The Cross		
	동 영 상	캄보디아 소개		
	말 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8) 임춘배 목사		
	특 별 선 교 헌 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주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렘52:1-34)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 외 단 기 선 교	7월29일(월)~8월3일(토) / 캄보디아 ※ 단기선교팀 기도제목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시면서 하루에 한번 10분 이상 기도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오후 5시에 지하2층 베다니실(청년부실)에서 선교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2. 오 후 예 배 안 내	오늘 오후예배는 단기선교 파송예배로 드립니다.		
3. 전 교 인 수 련 회	일 시: 8월 4일(주일)~6일(화) 장 소: KOBACO 남한강 연수원 (경기도 양평군) 주 제: 우리의 사명 전도와 선교 강 사: 이삭 목사(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회 비: 4인기준 35만원(1인추가 5만원) 3인기준 30만원 2인기준 20만원 1인기준 15만원 청년단독 8만원 바울·에스더 단독 7만원 ※ 수련회 회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349-04-269375 / 예금주 : 손영삼 ※ 본당 뒤편에 비치된 수련회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1층 안디옥실에서 있습니다.		

7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7월 7일	성경오류논쟁 1강			임춘배 목사		
7월 14일	성경오류논쟁 2강			임춘배 목사		
7월 21일	단기선교 파송예배			다 함 께		
7월 28일	성경오류논쟁 4강			임춘배 목사		

2019년 성경강론 범위						
7/21	7/22	7/23	7/24	7/25	7/26	7/27
	잠언 25장	잠언 26장	잠언 27장	잠언 28장	잠언 29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가정예배] 처음 신앙을 회복합시다

찬송 :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통 195장)

본문 :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난 날, 회사에 취직하여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린 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감격한 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있었던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로마시대에 인구가 가장 많고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고, 이 신전이 황제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다가 후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신전을 에베소에 건축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2년을 두란노서원에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의 강연을 듣고 복음이 무서운 속도로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에베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할 정도로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25년이 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2~3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단의 세력을 몰아내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 에베소 교회였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책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처음 신앙이 식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처음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최후 심판도 있지만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처음 신앙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첫째는 회개함으로 회복됩니다. 회복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낸 것, 교회에 함부로 했던 나의 모습, 그것을 인정하고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선과 의가 전혀 없다는 정직한 절망이고 자백입니다. 회개는 눈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삶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진짜 회개입니다. 처음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예루살렘에서 4 (행 22:30-23:11)

서 론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본 론

1. 공회에서의 변론

- (1)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앞에 세움
- (2)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음
- (3) 바울의 두가지 고백: ①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 ②부활 소망 때문에 심문을 받는다
- (4) 바울의 이 발언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고 천부장은 군인들을 명하여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도록 함

2. 교훈

- (1)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보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 (2)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자.
- (3)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결 론

범사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계승 장로	윤호중 장로
헌 금 위 원	신희강 안기연 오성애	윤국로 이용규 이용재
오후예배 기도	구영서 집사	안혜진 집사

매일 성경 강독		히스기야가 편집한 잠언	날짜 : 7월 22일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 통일 찬송가 410장)		
통독	잠언 25장		
본문 내용	본장은 다섯번째 잠언의 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여기서 주로 통치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혜와, 자기 제어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다. 왕 앞에서는 자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1-7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지 말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며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야 한다(8-15절). 음식에 과욕하지 말며 항상 진실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타인을 참소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의 영예를 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럴 때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16-28절).		
생각해보기			
1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1) 25장-29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의 모음집 (2) 1-13절 내용: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없애고 높은 체하지 말아야 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 사과 같으며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3) 14-28절 내용: 오래 참으면 관원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고 마시게 해야 한다. 참소하는 혀는 분을 일으킨다.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함은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자기 영예를 구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한다. (4)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자.		
핵심 단어	16절. 족하리만큼. 있는 재료가 넉넉하여 남음이 있음을 의미한다. 18절. 방망이요. 큰 나무로 만든 망치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망치를 가리킨다. 23절. 참소하는 혀는. '숨겨진 혀'를 뜻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대한 중상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영광과 찬양의 노래”
찬양과 기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통 8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에릭 리들(Eric Henry Liddell, 1902~1945)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의 삶이 감동스러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에든버러대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올림픽 육상 100m 경기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100m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히자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했고, 조국을 배신한 위선자, 편협한 신앙인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종목이 아니었던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땀고, 400m 경기에서는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어 자신을 비난하던 영국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는 시상식에서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 내지 선교사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쟁과 가난으로 굶주려 있는 이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병든 이들과 어린아이들을 도우며 4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시편 115:1~8	
묵상포인트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는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가족·직장·돈·명예·권력을 두며, 심지어 하나님보다 교회 일을 더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무능한 우상은 우리 영혼에 결코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시편 기자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고 노래하나요?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1절)	
적용하기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일은 무엇인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기도하기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죄성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도움이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의인이 다스리는 나라	날짜 : 7월 26일
찬양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송가 267장 / 통일 찬송가 201장)		
통독	잠언 29장		
본문 내용	본장은 다섯번째 잠언의 결론 부분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의인과 악인의 특성에 대해 요약 비교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의인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한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는 패망하게 되고 나라에 의인이 많으면 온 백성이 편안하게 된다. 따라서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하며 관리들은 정직하게 행해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봐야 한다. 이렇게 의인이 다스리는 나라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1-15절).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하며 악인은 징계하여야 한다(16-22절).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되나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을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만을 섬기는 자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안전할 것이다(23-27절).		
생각해보기			
1	지도자가 지녀야 할 지혜 (1) 1-14절 내용: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백성은 의인이 많아지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탄식한다. 아침하는 것은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한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왕은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2) 15-27절 내용: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교만하면 낮아지나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3) 지혜로운 지도자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다. (4) 지혜로운 지도자는 충고와 아침을 가려듣는 귀, 분노를 다스리고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힘없고 약한 자를 보살피는 손길을 가져야 한다.		
핵심 단어	12절. 신청하면.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으로 깊은 주의를 기울임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관원이 종들의 거짓말과 아침을 받아들이를 의미한다. 15절. 버려 두면. '보내다, 풀어 주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책임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며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낸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날짜 : 7월 23일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 통일 찬송가 178장)			
통독		잠언 26장			
본문 내용		본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런 어리석은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영예를 얻지 못하며 오히려 쓸데없는 말로 고통을 당한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여 영원히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1-12절). 게으른 자는 소중한 노동을 싫어하고 쓸데없는 일에만 시각을 허비한다. 또한 이웃을 속이고 공동체 속에서 분쟁만 일으킨다(13-19절).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공교한 말로 남을 속이고 악을 도모하며 타인을 악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신도 함께 멸망을 맞게 될 것이다(20-28절).			
생각해보기					
1		미련한 자의 잘못된 언행 (1) 1-12절 내용: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2) 13-28절 내용: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힘들어한다. 말쟁이가 없다면 다툼이 그치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원수는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꾸미나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지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3) 미련한 사람을 경계하고 그에게서 나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분별해야 한다. 게으름, 험담과 거짓말, 아침을 멀리해야 한다.			
핵심 단어		6절. 기별하는 것은. '어떤 말을 전하다, 어떤 일을 맡기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위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14절. 돌쩌귀를. 돌쩌귀는 문짝을 달고 여닫기 위한 쇠붙이로 암수 두 개의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은 돌쩌귀를 따라 맴돌 뿐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오늘을 사는 지혜	날짜 : 7월 24일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 통일 찬송가 347장)		
통독	잠언 27장		
본문 내용	본장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행해야 할 올바른 처신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전체적으로 성실하고 겸손한 삶을 강조함으로 인간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 주고자 한다. 인간은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므로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자중해야 하며 선한 충고를 경솔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1-10절). 또한 재앙은 피해 가고 여인을 고를 때는 외모보다 원만한 인격을 보아야 한다(11-16절). 자신의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말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가업에 성실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7-27절).		
생각해보기			
1	유익을 주는 진실한 관계 (1) 1-27절 내용: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하지 말아야 한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떠도는 새와 같으며,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보증을 서면 불모로 갇힐 수 있고, 사람이 친구를 빛나게 하며,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양떼 등 가축을 잘 살피면 옷과 음식을 얻는다. (2) 진정한 인간관계는 칭찬과 격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실하고 사랑이 담긴 충고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된다. (3)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일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본다. 아무리 많은 축복과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게을러서 그것들을 방치해 둔다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수 없다.		
핵심 단어	5절. 면책. 공개적인 입증이나 징계를 의미함을 보여 주는데 면책은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13절. 외인들의. 이방 여자나 음녀를 의미하는데, 보증을 세우도록 허락한 자는 음녀의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악인과 의인에 대한 교훈	날짜 : 7월 25일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 / 통일 찬송가 539장)		
통독	잠언 28장		
본문 내용	본장에서는 다시 악인과 의인의 특징을 대조하며 그로 말미암은 축복과 멸망의 두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로써 저자는 지혜로운 길에 대한 선택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나 의인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얻게 된다. 그는 사람에게 존경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1-12절). 악인은 백성들을 핍박하므로 곧 넘어지나 성실히 행하는 의인은 환난을 면하게 된다(13-18절). 자신의 일에 충성한 자는 복이 많아도,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19-28절).		
생각해보기			
1	더 우선하는 것 (1) 1-11절 내용: 악인은 추격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담대하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한 자로 인해 오래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2) 12-28절 내용: 의인이 득의하면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완악하면 재앙에 빠진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행하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3) 의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의를 앞세우고 성공보다 순종을, 풍성함보다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우선시한다.		
핵심 단어	12절. 일어나면. 악인의 본성이 드러나 마침내 악인의 악행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14절. 강박하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